

## DMZ를 따라 걷는 평화의 울림, 2026 「DMZ 평화걷기」 사업 추진

- 고성에서 강화까지,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험
- 6월부터 총 4회 실시, 전 세대가 함께하는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
- 접경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 실천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8.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

- 통일부는 비무장지대(DMZ) 일원을 직접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2026 「DMZ 평화걷기」 사업을 추진한다.
  - 이번 사업은 민통선 이북 및 DMZ 구간을 중심으로 노선을 편성하여, 참가자들이 분단의 역사와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올해 사업은 6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, 참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점별 단기 노선(6박 7일)과 동서 횡단 장기 노선(12박 13일)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.

구분	대상	시기	인원	장소	기간
거점별 노선	청년, 대학생	6.8.~14.	회차별 45명 내외	고성~철원	6박 7일
	중·고등학생(교사 및 보호자 동반), 대학생, 청년 등	7.4.~10.		고성~파주	
	외국인, 일반인 등	9.6.~12.			
동서횡단 노선	일반 국민	10.18.~30.		고성~강화	12박 13일

- 통일부는 동 사업을 통해 걷기 외에도 참가자들이 접경지역의 평화적 가치를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쌍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.
  - 평화·공존 프로그램 : 접경지역 역사·생태 및 평화·통일 전문가 특강, 명사·접경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필요성 공유
  - 지역 상생 협력 : 접경지역 축제와 연계하거나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
  - 체험 및 공유 : 도보 일정 중 거리 공연, 사진 및 소감문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느낀 평화의 가치를 기록하고 확산
  - 완주 인증 제도 : 각 구간을 완주한 참가자들에게 인증서와 기념 메달을 수여하여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성취감을 부여
  
- 전체 사업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 구간에 24시간 응급차량과 의료진을 배치하고 실시간 안전 점검을 통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.
  
- 참가 희망자는 통일부 누리집(unikorea.go.kr)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사업 운영업체 누리집(dmzpeace.co.kr)에서 신청할 수 있다.
  - 온라인 신청 후 절차를 거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, 세부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붙임 : 1. 2026 「DMZ 평화걷기」 포스터  
 2. 동서 횡단 구간 노선도

담당 부서	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성렬	(02-2100-5840)
		담당자	주무관	문경미	(02-2100-5843)





